



# 정수

{ 전라북도  
관광스토리텔링 210選

Tourism Storytelling



## 논개의 열이 숨쉬는 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고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향교, 나라를 위해 몸바친 논개의 탄생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 관광객을 부르는 인심좋은 고장 장수.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 장수

1. 충절의 본보기, 주논개 생가지와 논개사당(의암사) ● 06
2. 최장수 학교, 장수향교 ● 11
3. 금강의 발원 천(川), 뜬봉샘 ● 16
4.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 인물 이덕(二德) ● 19
5.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 인물 삼절(三節) ● 26
6.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 인물 오의(五儀) ● 31
7. 청정 농축산물, 장수한우 ● 46
8. 청정 농축산물, 장수사과 ● 49
9. 옛 것이 좋은 사람들, 주촌민속마을 ● 52
10. 자연으로의 여행, 장안산과 방화동 가족휴양림 ● 54
11. 장안문화예술촌과 도깨비 축제 ● 58
12.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만남, 팔공산 ● 61
13. 군사의 요충지, 함미성 ● 64





▲ 방화동 가족휴가촌

## 최적의 자연경관을 갖춘 매력적인 휴양지

전국 80대 종산에 속하는 장안산 기슭에 조성되었으며 덕산용소에서 방화동 계곡으로 연계되는 코스에 자연학습장, 모험놀이장 등의 산람욕장시설이 자리하며, 깨끗한 계곡물을 따라 다양한 수목이 우거져 있다.





관광 문의처 :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 ☎ 063-350-2312



▲ 의암사 전경

## 1. 충절의 본보기, 즉 노개 생가지와 노개사당(의암사)

노개는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주성을 점령, 남편 최경회를 비롯하여 김천일·고종후 장군 등이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자, 남편의 원수를 갚고 설욕하고자, 축석루에서 벌어진 왜군 승전 잔치에 기생을 가장하고 참석하였다. 진주성 승리에 도취된 왜장을 남강가 바위로 유인,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강속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순절을 높이 찬양하며, 예문관에서 의암이라 는 시호를 내리고, 진주 축석루 곁에 사액 정문을 지어 그 넋을 위로 추모하게 하였고, 투신한 바위를 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1955년 장수에 사당을 지어 '의암사'라 명하고 노개의 영정을 모셨으며, 매년 음력 9월 3일 주(朱)노개제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치뤄진다.



의암사는 지방기념물 제46호로, 장수현감 정주석이 주(朱)논개의 충절을 찬양하며 그의 탄생일을 기리기 위하여 1846년 논개생장향수명비를 세운 후, 1955년에 군민의 성금으로 남산에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1974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경내에는 ‘矗石義妓論介生長鄉暨名碑(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가 있고, ‘의암사’라는 현판이 걸린 사당에는 논개의 영정(김은호 화백 작)이 있으며, 외삼문과 내삼문, 충의문이 차례로 있다. 기념관에는 약간의 논개 유품과 남편 최경희 장군의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덕유산 자락이 펼쳐 있고 팔방이 산맥의 겹주름으로 에워싸인 두메산골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주촌은 의암 주논개가 태어난 마을이다.

## 주논개 생가

결 고른 담으로 싸인 초가집들이 있는 한쪽에는 의암논개의 비가 세워져 있다. 주논개 생가지의 경내 시설로는 의랑루, 연못, 단아정, 기념관, 생가가 있다.

논개는 서당에서 교육을 하던 선비 주달문과 밀양 박씨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때가 1574년 9월 3일 밤으로 갑술해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4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났다. 그리하여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개를 놓다(낳다)’ 하여 ‘놓은 개’ 즉 논개라 하였다. 논개는 아버지에게서 한문과 예도를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개의 나이 열세 살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 만 세상을 떠나게 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주색잡기와 행패를 일삼고 다니던 논개의 숙부 주달무는 당시 지방의 토호였던 김풍헌을 찾아간다. 그리고 동네 앞 상담 세 마지기의 문서와 엽전 300냥 당백포 세 필에다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까지 얻어가지고 돌아간 주달무는 그 날 이후로 마을을 떠나버리고 만다.

김풍헌의 아들로 말하자면 머리는 팔푼이요, 손발은 비틀어져 중풍처럼 떨리고 입은 병어리라 살아있다 해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김풍헌이 길일을 택하여 박씨부인에게 전달하게 되자, 박씨부인은 혼비백산하여 논개를 데리고 일단 친정인 안의현

논개는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주성을 점령, 남편 최경희를 비롯하여 김천일·고종후 장군 등이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자, 남편의 원수를 갚고 설욕하고자, 축석루에서 벌어진 왜군 승전 잔치에 기생을 가장하고 참석하였다. 진주성 승리에 도취된 왜장을 남강가 바위로 유인, 그의 허리를 끼안고 함께 강속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



▲ 의암사 사당

서하면 봉정마을로 피신하였다.

한편 논개를 자신의 민며느리로 데려 오기 위해 가마와 시종을 주춘마을로 보냈던 김풍현은 이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자 노발대발하며 장수현감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논개 모녀를 처벌해 줄 것을 청하였다. 1578년 8월 관원들에게 붙잡혀 온 논개모녀는 장수읍 관아 소선루 뜰 앞에 꿇어 앉아 장수현감 최경희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이리하여 논개와 장수현감 최경희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최경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3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장수현감으로 와 있었다. 이들 모녀에게서 전후사정을 다 듣고 난 최경희는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이들 모녀는 갈 곳이 없어 침방관비를 자청하게 되고, 최경희의 부인(김씨)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된다.

이 때 논개의 나이 다섯 살 이었다. 그 뒤 이들 모녀는 최경희가 무장현감, 영암군수, 사도시정으로 관직이 바뀌어 부임할 때마다 따라 다니게 된다. 그간 나주김씨는 비록 허드렛일을 하기는 하나 그 몸가짐이 반듯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논개를 눈여겨 보았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나주김씨는 남편인 최경희에게 논개를 척실로 맞이할 것을 간곡하게 권한다.

그리고 나주김씨의 유언에 따라 논개는 현감의 척실이 되어 최경희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행복도 잠시.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서는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을 주축으로 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다.



▲ 의암사에 봉안된 논개영정



◀ 논개 생가지 의랑루



1578년 8월 관원들에게 붙잡혀 온 논개모녀는 장수읍 관아 소선루 뜰 앞에 꿇어 앉아 장수현감 최경희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이리하여 논개와 장수현감 최경희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에 최경희는 장수현 임현내면 월강리 앞 구렁에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모집에 힘을 기울여 무주, 진안, 장수 등지에서 약 5000여 명의 장정들이 모여들었으며 최경희는 이 사람들을 장대앞 넓은 들판을 이용하여 군사로 훈련하였으며, 장수와 금산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하였다.

1593년 4월, 최경희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의 요직을 받고 진주성에 입성한다. 남편을 진주로 먼저 떠나보낸 논개는 며칠 후 남장을 하고 초립을 쓴 채 말을 타고 300리 길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고향과 작별하는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논개는 그만 왜군에게 붙잡히고 만다.

왜군은 그들이 잡은 포로가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의 부인인 것을 알고 고개 넘어 왜군의 본거지인 창원 부근으로 그녀를 압송한다. 때마침 김천일 장군, 고종후 장군, 황진 장군 등도 조정의 명을 받아 진주로 향하고 있던 중 왜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부상당한 병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로부터논개부인이 왜군들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은 왜군을 추격하여 극적으로 논개부인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무사히 진주성에 도착한 이들은 “진주입성 도중 귀한 전리품을 빼앗았으나 이곳이 경상우병사 관할이므로 도리상 전리품을 넘



▲ 논개 모녀와 최경희의 만남 조각상



◀ 원래의 논개 생가터였던 대곡제

나주김씨는 비록 허드렛일을 하기는 하나 그 몸가짐이 반듯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논개를 눈여겨 보았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나주김씨는 남편인 최경희에게 논개를 척실로 맞이할 것을 간곡하게 권한다.

겨주겠노라”고 말하자 최경희가 이를 극구 만류하였다.

이때 교자 한 채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논개부인이 내리자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된 최경희는 백배사죄하고 논개부인을 인수하였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온다.

그러나 논개부인이 진주성에 입성한 채 2개월이 되지 않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 침략에 나선 가동청정은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은 진주성을 집중적으로 총 공격하기 시작한다. 용장 모곡춘육조를 선봉장으로 하여 공성장을 성정하고 10만 대군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에워싸고 설새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가 1593년 6월 19일이었으며 때마침 장마철에 접어들어 남쪽에서 몰려온 검은 구름이 비로 변하더니 연일 굵은 빗줄기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매일 쏟아붓는 장마비에 견디지 못하고 성첩의 동남각이 무너진 것은 6월 28일이다. 이때 황진 장군이 필사적으로 적을 막아 성첩이 보수되었으나 황진 장군은 불행히도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6월 29일 밤 서남방의 성첩이 무너지면서 왜적이 개미떼처럼 진주성으로 들어와 결국 진주성은 왜적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성안으로 들어온 왜적은 조선 방어군 뿐만 아니라 무장하지 않은 백성까지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진주성이 적의 손에 들어가자 최경희, 김천일, 고종후, 이종인, 장윤 등은 남자대에 모여 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차례



▲ 복원된 논개 생가



◀ 논개 생가지 전경



남편을 진주로 먼저 떠나보낸 논개는 며칠 후 남장을 하고 초립을 쓴 채 말을 타고 300리 길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고향과 작별하는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논개는 그만 왜군에게 붙잡히고 만다.



로 남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말았다.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희마저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듣게 된 논개는 망연자실하였다. 얼마 후 성을 함락시킨 왜군이 권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일을 기해 축석루에서 승정연을 베풀고자 기녀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이자 이를 본 논개는 진주고를 수안기생을 찾아가 이번 기회는 하늘이 나에게 준 설욕의 기회라고 말하며 기생명부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간청하게 된다. 이에 기생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자진하여 논개부인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드디어 7월 칠석날 공성에 참여했던 왜장들이 축석루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논개는 난생 처음으로 짙은 화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서 연회에 참석하였다.

기생들의 도움으로 공성의 주장인 게야무라로구스께 옆에 앉게 된 논개는 방자하고 교만한 게야무라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해 그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되자 추파를 던져 무리속에서 빠져나와 남강기슭에 있는 바위까지 그를 유인한다. 바위위에 다다르자 위협을 느낀 게야무라가 도망치려 하자 논개는 그를 힘껏 껴안고 강물속으로 같이 떨어졌다. 실새없이 내린 장마비로 인해 물이 불은 남강은 순식간에 이들을 집어삼켜버렸다. 이때가 논개부인의 나이 19세였다.

그 당시 마을은 대곡제에 수몰되고 남아있는 당상 옆에 생가만 복원되었다. 그 뒤 1996~2000년도에 2만평의 부지에 확장 정화하였는데, 그 때 주논개의 생가가 복원되었다. 그리고 생장유허비가 세워져 의암 주논개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 논개의 진주성 순절 조각상



◀ 장수 주촌 민속마을 입구

7월 7일을 기해 축석루에서 승정연을 베풀고자 기녀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이자 이를 본 논개는 진주고를 수안기생을 찾아가 이번 기회는 하늘이 나에게 준 설욕의 기회라고 말하며 기생명부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간청하게 된다.



#### ◀ 주촌 민속마을

바위위에 다다르자 위협을 느낀 게 아무라가 도망치려 하자 논개는 그를 힘껏 껴안고 강물속으로 같이 떨어졌다. 칠새없이 내린 장마비로 인해 물이 불은 남강은 순식간에 이들을 집어삼켜버렸다. 이때가 논개부인의 나이 19세였다.

있다. 주논개 생가터에 위치한 논개 분수대는 동전을 던지면 음악과 함께 멋진 분수가 치솟는다. 놀이터에는 큰 그네도 있어 어른들도 타 볼 수 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주촌민속마을이 위치해 있고, 산 위로 올라가면 장안산과 백운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 정상 아래로는 지리지 계곡을 차로 탐방할 수 있다.

- 의암사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 전화 : 063-350-2561
- 주논개 생가 주소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 전화 : 063-350-2583







▲ 장수향교 대성전

## 2. 최장수 학교, 장수향교

장수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이다. 처음엔 장수읍 선창리 당곡에 세워졌는데, 그 규모가 웅장하고 양식이 정교하여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를 차례로 다 짓기까지 15년이 걸렸다 하며, 1407년(태종 7)에 완공했다.

그 후 선창리 당곡에 창건했던 향교는 티가 가라앉고 비가 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의 유림들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왕의 윤허를 받아 1685년(숙종 11) 3월에 유림인 한익삼을 감역(監役)으로 정하고 현 위치에 이긴 사업을 착수하여 이듬해 2월에 대성전을 비롯해 명륜당과 동·서재 등을 창건 당시의 원형대로 옮겨 세우는 공사를 끝마치게 된다. 장수 향교가 처음 세워진 지 279년만의 일이었다.

오랜 역사의 흔적과 의암송이 있는 장수군청에서 장수향교까지



는 걸어서 채 5분이 안된다. 좁은 길을 돌아가니 장수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옆이 바로 향교이다.

향교 앞에는 장수향교라고 쓴 선돌이 있고 그 뒤로 아담한 담장이 향교를 감싸고 있다. 담장 안으로는 마당이 있으며 이 마당 너머에 바로 향교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마당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최근에 세운 장수향교 600주년 기념비가 눈에 띈다. 장수향교가 1407년에 세워졌다고 하니, 이 비석은 작년에 세워진 것이다. 그 옆으로 장수향교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도 보이고, 현감을 지낸 사람의 선정비도 보인다.

충북 정경손은 이 장수향교 지기로 정유재란(1597년) 때 맨 몸으로 장수향교를 지켜낸 사람으로 이 비석은 1846년(헌종 12) 당시 장수현감이던 정주석이 정경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석에는 ‘충북정경손수명비(忠僕丁敬孫淸名碑)’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충성스런 노복 정경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라는 뜻이다.

비각을 지나 유교의 가장 큰 덕목이 삼강오륜을 지탱하고 부양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세 칸짜리 부강문(扶綱門)을 거쳐 향교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강당인 명륜당(明倫堂)이 앞에 있고, 그 뒤로 문묘(文廟)인 대성전(大成殿)이 보인다. 이 명륜당과 대성전이 바로 장수향교의 중심 건물로써 그 역사가 무려 60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앞뒤에는 마루를 내어 방과 구별하였다. 여름에 문을 위로 들어 올리면 이

충북 정경손은 이 장수향교 지기로 정유재란(1597년) 때 맨몸으로 장수향교를 지켜낸 사람으로 이 비석은 1846년(헌종 12) 당시 장수현감이던 정주석이 정경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석에는 ‘충북정경손수명비(忠僕丁敬孫淸名碑)’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충성스런 노복 정경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라는 뜻이다.

- ▼ 장수향교 정경손 수명비 (좌)
- ▼ 장수향교 명륜당 (우)





곳은 마치 누각처럼 앞뒤가 완전히 트이도록 만들어졌다.

방 안에는 향교의 관리규칙 현판, 성전이 퇴락해 중수했다는 중수기 현판, 재산으로 노비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현판 3개가 걸려 있다. 관리규칙 현판은 을유(乙酉)년 2월 현감인 홍재탁(洪在鐸)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결까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유사는 향교의 우두머리(首任)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의는 중요한 직책으로 두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명륜당을 보고 나면 또 하나의 문을 통해 대성전으로 갈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을 한 대성전은 낮은 석축 기단 위에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

주초석은 화강암을 다듬어 원형 2단으로 만들고 그 위에 두리기 등을 세웠다. 다포집 계통의 포작형식이며 공포와 공포 사이에는 화반 2개씩을 올려놓았다. 대성전의 옆면은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귀기둥 받침을 하고 있다.

특히 장수향교의 명륜당과 대성전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 초기 향교건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색창연한 멋을 간직한 장수향교는 그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272호로 지정되었다.

장수향교의 명륜당과 대성전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 초기 향교건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색창연한 멋을 간직한 장수향교는 그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272호로 지정되었다.

● 장수향교 주소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 ▼ 장수향교 경성재 (좌)
- ▼ 장수향교 사마재 (우)







▲ 뜬봉샘 원경

### 3. 금강의 발원 천(川), 뜬봉샘

수분마을 뒷산(신무산) 계곡을 따라 2.5km 올라가면 금강의 발원천이 되는 뜬봉샘(飛鳳泉)이 있다. 이 뜬봉샘에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얽힌 설화가 전해온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얻기 위해 전국 명산의 산신에게서 계시를 받으려고 제일 먼저 팔공산(신무산)에 들러, 신무산 중턱, 아담한 곳에 단(壇)을 쌓고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백일째 되는 날 새벽, 단에서 조금 떨어진 골짜기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하늘로 너울너울 떠가는 것이었다. 봉황이 떠가는 공중에서는 빛을 타고 아련히 무슨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나라를 열라”는 천지신명의 계시가 귓전을 스친 것이다. 이성계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뜬 곳을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풀썩으로 덮인 웅덩이가 있었다. 이성계



는 하늘의 계시를 들은 단(壇堂) 옆에 상이암(上耳庵)을 짓고, 웅달샘물로 제수를 만들어 천제를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웅달샘에서 붕이 떴다고 해서 샘 이름을 뜬봉샘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무산에서 봉화를 올리며, 이 고장의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 군데군데에 뜬을 떴다고 해서 뜬봉샘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샘 주변은 돌로 원을 그리며 쌓아 놓았으며, 그 아래에 흐르는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량이 적어 혼탁해진 관계로 식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의 신무산(897m) 8부 능선에 자리한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샘이다. 뜬봉샘은 용담호와 용담댐, 금강하구둑 등을 지나며 397.25km를 흐르다 서해바다 하구로 빠져나간다.

뜬봉샘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고개가 수분령으로 높이가 해발 539m나 되는 고지대이다. 수분령은 장수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의 고개로 장수읍 수분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물줄기가 북쪽으로 흐르면 금강, 남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되는 분수령을 이루는 곳이다. 즉, 물이 서로 갈라지는 곳이라 하여 수분령이라 부른다. 이 수분령은 신무산의 으뜸목이며 금남호남정맥의 줄기이기도 하다.

돌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물줄기는 조금씩 계속 아래로 흘러간다. 뜬봉샘에서 신무산 정상까지는 2km거리이다. 등산로를 따라 4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뜬봉샘이라 이름을 새긴 바위 뒤편으로 희미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된다.

뜬봉샘이 흘러 내려가 금강의 첫 실개천을 이루는 곳이 강태등골이다. 뜬봉샘 물줄기가 강태등을 지나며 강태등골이란 실개천이 형성되었다. 원수분천은 강태등골을 시작으로 1.5km를 흘러 수분천으로 이어지며 5.5km를 더 흘러서 주변의 실개천과 만나 금강이 되어 서해로 흐른다.

강태등골은 우리가 들판에서 보아오던 하천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다. 개천의 폭이 대부분 50cm 미만이며, 어떤 곳은 한 뼘도 채 되지 않는다. 돌 주변에 이끼가 뒤덮여 있어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성계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뜬 곳을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풀섬으로 덮인 웅달샘이 있었다. 이성계는 하늘의 계시를 들은 단(壇堂) 옆에 상이암(上耳庵)을 짓고, 웅달샘물로 제수를 만들어 천제를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웅달샘에서 붕이 떴다고 해서 샘 이름을 뜬봉샘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 뜬봉샘 가는 길







#### ▶ 뜯봉샘

수분령에는 수분령휴게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식당, 매점,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사식당 위쪽의 산 중턱에 수분송이라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옛날에는 돌무더기를 쌓거나 나무를 심어 지역이나 강 유역 등을 구분했던 것으로 보아 이 소나무 역시 그런 표식으로 심어진 나무가 아닐까 싶다.

탐방객들의 실개천 답사를 돕기 위해 나무데크 시설을 곳곳에 설치 중이다. 강태등골 아래에는 금강의 첫 동네인 물뿌랭이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물뿌랭이는 물뿌리의 전라도 사투리로 금강의 뿌리가 되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1986년경 이 마을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 말씀 중에 “처녀적 이 마을에 시집을 때 중매 할멈께서 시집가는 마을은 물뿌랭이 마을이라, 그렇게들 부르기도 했지”라고 안내판에 적혀있기도 하다. 대부분이 슬레이트집인 수분마을은 우리나라 1970~1980년대 농촌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향수를 자아낸다.

수분령에는 수분령휴게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식당, 매점,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사식당 위쪽의 산 중턱에 수분송이라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옛날에는 돌무더기를 쌓거나 나무를 심어 지역이나 강 유역 등을 구분했던 것으로 보아 이 소나무 역시 그런 표식으로 심어진 나무가 아닐까 싶다.

휴게소 맞은편의 약수터가든 앞에는 수분약수가 솟아 긴 여정에 지친 나그네의 목을 시원하게 축여 준다. 혀끝을 적시는 차갑고 시원한 그 느낌에 피로가 싹 가신다.

#### ● 뜯봉샘 위치 : 장수군 수분리 신무산내







▲ 월강사 전경

## 4.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인물 이덕(二德)

장수에는 이덕(二德) · 삼절(三節) · 오의(五義)로 일컬어지는 장수를 대표하는 10인의 인물이 있다.

이덕(二德)이란 고려 말 충신으로 조선 개국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장수에 유배된 백장 선생과 명재상으로 청백리로 귀감이 된 황희 정승을 말한다.

충숙공 정신재 백장 선생은 불교문화가 퇴조하고 유교문화가 활기를 띠던 고려말엽에 태어났다. 포은 정몽주에게 사사하여 뛰어난 성리학자로 일컬으며 공민왕 때에는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이다.

국운이 다한 고려가 망하고 역성혁명으로 새왕조를 건설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새 질서를 세우고 국가의 기반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크나큰 고민이 생겨났다. 이성계의 주변에는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려조에 정치에 참여했던 현명한 신하와 애국지사들은 죽음으로 항거하거나 살아서도 세상을 등진 채 산 속으로 숨어들어 은둔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송도에서 멀지 않은 광덕산 기슭에 있는 두문동에서 세상을 등진 채 생활하고 있었다.

조선은 왕자의 난까지 겹쳐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흥흥해졌다. 이에 이성계는 국가의 기반을 다질 인재를 얻기 위해 두문동으로 사람을 급파하기에 이른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고려조에서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고매한 인격과 높은 학덕을 지닌 정신재 백장 선생이었다. 하지만 백장 선생은 단호히 이 청을 거절한다. 이에 크게 진노한 이성계는 왕명을 불복한 죄를 물어 충청남도 해미 땅에 귀양을 보내니 이때가 1396년 백장 선생의 나이 55세였다.

선생은 본디 성정이 곧아 흥청거리는 것을 멀리한 채 선비의 성품을 간직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이 경서와 역리를 연구하는 데에 열중하였다. 그 뒤 1405년(태종 5)에 다시 백장 선생에게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사부를 제수하고 친서와 역마를 보내어 불러들였다.

이에 백장 선생이 화답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하고 열부는 불경이부라 함은 서책에 나타나 있기를 해와 별같이 밝으니 어찌 여조께서 삼대의 왕을 모신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가지 않으니 조정에서는 선생의 처사를 꽤심히 여겨 개경에서 해미보다 훨씬 먼 깊은 산골인 장수현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 월강사 사우

충숙공 정신재 백장 선생은 불교문화가 퇴조하고 유교문화가 활기를 띠던 고려말엽에 태어났다. 포은 정몽주에게 사사하여 뛰어난 성리학자로 일컬으며 공민왕 때에는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이다.

◀ 백장 신도비





이때부터 백장 선생은 장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귀양 온 지 얼마 후 주변을 산책하던 백장 선생은 적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맑게 흐르는 유천의 남쪽 언덕에 빼어난 경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정자를 짓고 ‘청심정’이라 명명하였다. 백장 선생은 이 곳에서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간 고려 왕조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시름에 잠기기도 하였다.

장수 고을 사람들은 한 가문에서 판서를 셋이나 배출한 백장 선생 가족이 이 고장에 오신 것을 고을의 명예로 생각하였으며, 그로부터 인간의 도리를 배우면서 백장 선생을 하늘처럼 받들고 따랐다. 후에 방촌 황희 정승도 이 곳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황희 정승은 적장자의 폐세자를 강력히 반대하다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백장 선생 적소의 근처인 장계면 위동으로 유배되어 대선배이자 스승격인 백장 선생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황희 정승은 명재상 혹은 청백리의 표본으로 그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의 온후한 성품과 고결한 인품을 엿 볼 수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그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황공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사리에 따랐고, 규모가 원대하여 세종의 예우와 신임이 갈수록 융숭하여 비록 궁중의 비밀이라도 반드시 공을 불러 의논하면 한 마디로 결정되었고, 물러나와서는 그 일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으므로 그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진 재상을 말할 때에는 으레 공을 으뜸으로 쳤고 송나라의 왕문정 조(王文正 甫)와 한사헌 기(韓史獻 璫)에 비하였다.



귀양 온 지 얼마 후 주변을 산책하던 백장 선생은 적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맑게 흐르는 유천의 남쪽 언덕에 빼어난 경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정자를 짓고 ‘청심정’이라 명명하였다. 백장 선생은 이 곳에서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간 고려 왕조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시름에 잠기기도 하였다.

◀ 백장 묘소





그는 백장 선생을 조석으로 찾아가서 가르침도 받고 유배생활에 대한 위로도 해드리며 정겨운 시간을 가진다. 어느 날 정자위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백장 선생이 황희 정승에게 시 한수를 지어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어찌 그대 아니고서 이운이 있어 섬기겠는가. 살아서 요순을 만나 태평한 때 되리. 봄이 오면 홀로 고비 고사리꽃 이슬 받아다가 저 서산에 주려죽은 귀신에게 술 뿌려 주리.

태조와 태종에게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귀양살이라는 괴로운 나날을 마다하지 않았던 백장 선생이, 자신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 시대의 백이숙제와 같이 죽어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신이 될 터이니, 황희 그대는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년대를 만든 은나라 이운과 같은 충신이 되라는 시이다. 이 시만 보더라도 백장 선생의 위대한 충효정신과 높은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황희 정승은 백장 선생의 이러한 인격을 마음 깊이 흠모하고 따랐으며, 늘 선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는 황희 정승이 달밤을 이용하여 백장 선생이 계시는 월강리를 방문하였는데, 선생은 차마(車馬)로 근처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지라, 빈집에 머물며 선생이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니 달빛만 뜰에 비칠 뿐이었다.

하루는 황희 정승이 달밤을 이용하여 백장 선생이 계시는 월강리를 방문하였는데, 선생은 차마(車馬)로 근처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지라, 빈집에 머물며 선생이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니 달빛만 뜰에 비칠 뿐이었다.



◀ 창계서원 전경



주변은 괴괴한데 어디선가 시 읊는 소리가 들리기를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명월만 스스로 뜰에 가득하네”라 하니, 황희 정승은 마음에 괴이히 여겨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사람의 소리도 아니요, 귀신의 소리도 아니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 집에 돌아 온 황희 정승은 며칠 후에 백장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게 되었다.

백장 선생의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 태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수랏상에 고기반찬을 올리지 마라는 명을 내렸다한다. 죽어서도 고려조의 직함을 쓸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엄히 일러 그의 묘비에는 ‘고려국 이부전서 보문각 대제학 백장지묘’라고 쓰여 있다. 거의 반평생을 은둔과 유배생활로 지내면서도 충절을 지키고 고귀한 인품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으니,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충신 중의 충신 이요 선비 중의 선비이다.

황희는 귀향생활을 마친 뒤 세종 4년 10월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었고 그 뒤 몇 몇 직책을 거쳐 1426년(세종 8) 2월 이조판서에, 그 해 5월에는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며, 1427년(세종 9) 1월 좌의정에, 1431년(세종 13) 9월 영의정에 각각 올랐다.

황희는 63년간의 관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상의 직위에 24년이 나 있었다. 그 가운데 영의정으로 18년 동안 재직하였다. 왕의 신임이 황희만큼 두터웠던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재직 중에 18번이나 사직서를 냈지만, 왕의 윤허를 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조선 5백여년 동안 그 유래가 없는 일로 정치에 있어 내치, 외교, 국

백장 선생의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 태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수랏상에 고기반찬을 올리지 마라는 명을 내렸다한다. 죽어서도 고려조의 직함을 쓸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엄히 일러 그의 묘비에는 ‘고려국 이부전서 보문각 대제학 백장지묘’라고 쓰여 있다. 거의 반평생을 은둔과 유배생활로 지내면서도 충절을 지키고 고귀한 인품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으니,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충신 중의 충신이요 선비 중의 선비이다.



◀ 창계서원 상현재



방,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곳도 황희의 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황희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관리나 백성들의 폐단이 되는 일이나, 사치스러운 일, 번폐스러운 행사를 줄이고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한 예로 지방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을 줄여줄 것을 수차례 간언하였으며, 사치풍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26년(세종 8) 2월 12일에 황희는 장계를 올려 지방관원이 다른 데로 부임할 때 일일이 조정에 와서 하직인사를 하는 제로도 생략하기를 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아내었다. 황희는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죄지은 자에게는 철저하게 징계하였다.

1436년(세종 18) 7월 8일 장계를 보면, “지금 충청·전라·경상도와 경기 좌도의 여러 고을은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곡식이 타서 추수의 희망이 없으니 민생문제가 심히 염려 되옵니다. 따라서 금년에 납부할 재목을 모두 탕감하여 주고, 또 전에는 가을철이면 충청도의 쌀을 배로 운반하여 백관들의 정월 녹봉을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을부터 백성들의 식량이 절핍되었으니 양곡의 상납을 중지하시고, 명년 정월의 관리 녹봉을 적당히 감하여야 하옵니다” 하고 왕에게 주청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같은 해 10월 13일 황희는 또 다시 장계를 올려 “지금 충청, 전라, 경상의 3도에 큰 흉년이 들어 민생문제가 심히 어려우니, 이제 파견하는 경차관은 각 고을을 순행하고 사찰하여, 만약 굶주려 부황난

황희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관리나 백성들의 폐단이 되는 일이나, 사치스러운 일, 번폐스러운 행사를 줄이고 사무를 간소화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그 한 예로 지방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을 줄여줄 것을 수차례 간언하였으며, 사치풍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창계서원 사우 창계사





백성이 있으면 그 고을 3품 이상은 장계를 올려 되에 처하고 4품 이하의 법에 의하여 즉시 처단토록 하여야 합니다.” 고 하였다 하니, 백성을 염려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1449년(세종 31) 봄, 황희는 87세의 나이로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왕에게 밝혔으나 왕이 들어 주질 않았다. 이에 황희가 왕에게 말하기를 “소신도 이제 많이 늙었사옵니다. 어느 때는 눈이 침침하고 마음과는 달리 몸도 전과 같이 말을 잘 듣지 않사옵니다. 흐려진 눈과 판단력으로 국사를 논한다면 전하와 백성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황희는 영의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벼슬에서 물러난 그는 모처럼 한가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시를 짓는가 하면, 강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 한 수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청계상 초당 밖의 봄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梨花) 백설향(白雪香) 유색(有色) 황금(黃金) 눈이로다.  
만학은 촉백성 중에 춘사 망연하리라.

푸르고 맑은 물가와 초가집 담에는, 봄이 어이 더딘가.  
배꽃은 벌써 피어 향기를 풍기고 버들가지에는 새 움이 돋았구나.  
골짜기에 가득한 구름 속 두견새는 우짖는데,

백장 선생묘소  
봄빛 받은 이 마음 달랠 길이 없구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방촌공원안에 방촌 황희 정승의 동상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장수 나들목을 지나 장계면 쪽으로 가다보면 백장 선생의 묘소를 발견할 수 있다.

● 백장 선생 묘소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방촌공원안에 방촌 황희 정승의 동상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장수 나들목을 지나 장계면 쪽으로 가다보면 백장 선생의 묘소를 발견할 수 있다.  
.....





▲ 의암사 앞 연못

## 5.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 인물 삼절(三節)

삼절(三節)은 굳은 절개를 지킨 3명으로 진주성에서 적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한 의암 주논개와 정유재란 때 왜병이 장수 향교를 불사르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저지하여 향교의 원형을 보존한 충북 정경손, 그리고 배행하던 현감이 물에 빠져 죽자 상전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순의리 백씨를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내세우는 것이 주논개의 충절이다.

### 논개

논개는 1574년 9월 3일 계내면 대공리 주촌마을에서 주달문의 딸로 태어났다. 주달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세에 그만 괴질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 뒤 후사가 없어 걱정하던 이들 부부는



명산인 장안산에 들어가 천지신명께 정성껏 기도를 드려 주씨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나이 40세에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딸이었다. 주달문은 “비록 딸이긴 하나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4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나서 장차 큰일을 하여 그 명성이 자자할 것이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 그를 보지 못함이 한스러울 따름이요.”하며 부인을 위로하였다. 그의 부모는 개해 개달 개날 개시에 태어난 아이라 해서 논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어린 논개는 매우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여 늙은 부모를 기쁘게 하였으며, 극진한 효성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을 일찍 여윈 논개는 어머니 박씨 부인과 함께 살다가 삼촌 달무의 제의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모녀를 받아들인 달무에게는 검은 속셈이 있었다. 지방 토호인 김풍현이란 사람의 백치 아들에게 어린 논개를 민며느리로 보내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겼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논개의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자 주달무도 후한이 두려워 도망갔고, 김풍현은 이들을 관아에 고발했다.

이때 등장하는 장수현감이 바로 최경회(崔慶會: 1532~1593)이다. 재판 과정에서 논개 모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최경회는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그들은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최경회의 아내 나주(羅州)김씨의 주선으로 내아(內衙)에서 일을



▲ 복원된 논개 생가

삼절(三節)은 굳은 절개를 지킨 3명으로 진주성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한 의암 주논개와 정유재란 때 왜병이 장수향교를 불사르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저지하여 향교의 원형을 보존한 충복 정경손, 그리고 배행하던 현감이 물에 빠져 죽자 상전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순의리 백씨를 일컫는다.



◀ 의암사





듬게 되었다. 김씨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논개는 자신을 구해준 최경희의 소실이 된다. 그 후 최경희가 진주병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가게 되자 논개도 따라나서 성 안의 온갖 궂은일들을 도맡아 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밀려드는 왜군에게 패하여 진주성이 함락되자 최경희는 크게 상심하여 남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다. 일본군은 진주성 함락을 자축하기 위해 축석루에서 진주의 기생들과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게 된다. 관기로 위장해 이 축하연에 참석한 논개는 축석루 아래 강가의 위암(危巖)으로 왜장을 유인했다. 논개는 옥가락지를 낀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힘껏 감았고, 왜장들과 진주 백성들의 경악을 뒤로 한 채 왜장을 안고 남강에 빠져 원수를 갚았다. 남강의 전승축하연장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때 논개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1786년 장수 사람들이 논개의 의로운 넋을 기린 추모비를 장수읍에 세웠다. 1995년에는 장수읍 장수리에 의암사를 세우고 해마다 논개의 생일날인 9월 3일이 되면 그녀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논개 영정

## 정경손

정경손의 비석이 서 있는 장수향교는 1407년(태종 7)에 장수읍 선창리에 세워졌는데, 1442년에 장수읍 장수리로 옮겨졌으며, 정경손은 이 곳의 향교지기를 하고 있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향교의 관속과 현감은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향교지기인 정경손만이 혼자 남아 향교를 지키고 있었다.

- ▼ 정경손 수명비 (좌)
- ▼ 장수향교 대성전 (우)



이때 왜군이 들이닥쳐 향교에 불을 지르려 하자 정경손은 뜰 앞에 엎드려서 “이 곳은 성현을 모신 성전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들어가려거든 날 죽이고 들어가라”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왜군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경손의 기개에 압도되고 그의 충성심에 깊이 감화된 왜장이 직접 ‘誰何勿入聖殿(누구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신표를 써 주고 조용히 물러갔다.

그 뒤 이 곳에 온 왜군들도 다른 곳은 다 파괴하였으나 오직 장수향교만은 이 신표를 보고 그대로 두고 돌아 갔다한다. 정경손의 기개와 지략으로 600여 년 전의 특유한 조선식의 건물 양식인 맛배집의 원형을 간직한 장수향교는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린 전국 향교 복원의 표본이 되었다. 1894년 정주석 현감은 정경손의 충의를 조정에 장계로 올려 호장으로 포양하고 『삼강록(三綱錄)』의 충신편(忠臣篇)에 수록함으로써 장수삼절로 추앙하게 되었다. 삼강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손의 성은 정씨이며 향교의 노복이다. 임진란을 당하여 왜적이 향교의 성전을 침입하였을 때 경손이 묘당의 제단에 엎드려 처음부터 끝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왜적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하고 따라서 신표를 주어 이러 말미암아 성전이 편안하였다. 비를 세워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장수향교 정문 앞에 <호성충북정경손수명비>를 세워 그의 뜻을 칭송하였다. 하지만 그의 충의를 발양한 지 400여 년이 되도록 공의 기일조차 챙기지 못하다가 1994년에 장수문화원에서 유림(儒林)과 상의 끝에 음력 3월 15일을 그의 기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 장수리 순의비

1678년(숙종 4)에 장수 현감이던 조종면이 관내를 순찰 중 암벽으로 된 비탈길을 지나다가 인기척에 놀란 꿩 한 마리가 길 옆 덩굴에서 갑자기 날아오르자 현감이 타고 가던 말이 덩달아 놀라 뛰다 천야만야 암벽 아래의 배리소에 빠졌다. 말에 타고 있던 원님도 같이 배리소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 그러자 현감을 모시느라 말을 몰던 백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보고는 자신의

경손의 성은 정씨이며 향교의 노복이다. 임진란을 당하여 왜적이 향교의 성전을 침입하였을 때 경손이 묘당의 제단에 엎드려 처음부터 끝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왜적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하고 따라서 신표를 주어 이러 말미암아 성전이 편안하였다. 비를 세워 제사 지내게 하였다.



잘못으로 현감이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벼랑 위에 핑과 말의 그림을 그리고 '타루(墮淚: 눈물을 흘리다)'라는 두 글자를 쓴 후 스스로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그 후 1802년 장수현감으로 부임해온 최수형이 이 사연을 전해 듣고, 성이 백씨라고만 전하는 통인(通引·관아에 팔려 잔심부름을 하던 벼슬아치)의 그 충성스런 의리를 널리 알리고자 비를 세워 '타루비'라 이름 짓고 그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타루비는 장척마을의 산기슭 도로가에 자리하고 있는 비로, 현감을 따라 순절한 통인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비각 안에 모셔둔 이 비는 받침돌 위로 비석의 몸통을 세운 간결한 구조이며, 몸통의 윗면 양 모서리를 비스듬히 잘라 다듬었다.

받침부분이 부러져 다시 보수하였으나 역시 볼품이 없어 1881년에 군민들의 뜻을 모아 '장수리 순의비'를 다시 세워 옆에 함께 모셔두었다. 장수에서 13번 국도를 타고 천천면사무소쪽으로 가다보면 이 타루비를 발견할 수 있다.

비각 옆 바위 윗면에는 같은 날 생을 마친 조종면 현감을 기리는 '불망비(不忘碑)'라는 글귀가 남아 있어 더욱 깊은 감회를 가져다준다. 1993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었다.



▲ 타루비 옆 절벽의 말과 핑 조형물

비각 옆 바위 윗면에는 같은 날 생을 마친 조종면 현감을 기리는 '불망비(不忘碑)'라는 글귀가 남아 있어 더욱 깊은 감회를 가져다준다. 1993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었다.



- 장수향교 : 장수읍 장수리 203-1
- 타루비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46

▼ 장수리 순의비와 타루비







▲ 백용성 조사의 생가터에 세워진 죽림정사

## 6. 장수의 표상들, 장수의 인물 오의(五儀)

오의(五義)는 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친 다섯 명을 일컫는 말로 기미독립만세운동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사람으로 선농일치의 불교를 직접 실천한 백용성 조사, 평생을 바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조선어학회를 지켜낸 정인승 선생,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대동의병장이 되어 용맹을 떨치다 일경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사한 전해산 장군, 역시 의병으로 덕유산 일대에서 신출귀몰한 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옥사한 문태서와 박춘실 의병대장을 가리킨다.

### 백용성 조사

암울했던 시대에 의롭게 살다간 용성 진중 대종사는 본관이 수원

이다. 부친은 남현(南賢)이고 모친은 밀양손씨(密陽孫氏)로서, 1864년(고종 1) 음력 5월 8일에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長水郡 蟠岩面 竹林理)에서 탄생하였다. 속명은 상규(相奎)이고, 법명은 진중(震鍾)이며, 법호가 용성(龍城)이다.

20세 되던 해에 용성대사는 큰 깨우침을 위해 보광사 도솔암에서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을 봉독하고 마음에 계합하여 육조혜능 대사를 만대의 스승으로 모실 것을 서원하였다.

1885년 9월, 선사의 나이 22세 때에 순천 송광사(松廣寺) 삼일암(三日庵)에서 정진하면서 틈틈이 경덕전 등록을 보다가 금륜가관(金輪可觀) 선사의 법어인 ‘월사만궁(月似彎弓)하니 소우다풍(小雨多風)’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마음의 눈이 열리고 뜻이 통하여, 일면불 월면불화(日面佛 月面佛話)와 무자화두(無字話頭)까지도 확연히 깨우치게 되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뜻 있는 애국지사들에 의해 각처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라 안팎은 어지럽고 민중은 고난에 처해 허덕이고 있던 때, 용성대사는 고향에서 보림수행을 거쳐 제방의 납자(納子)들을 접인(接人)해 바른 종풍진작(宗風振作)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혼란한 모습과 시대사조의 변천을 보고는 통탄하며 다음해 상경을 한다. 이때가 용성대사의 나이 47세였다.

서울에 올라온 용성대사는 종로 봉익동 1번지에 민가를 구입하여 대각사(大覺寺)를 창건하고, 이곳에서 교화에 전력하는 한편 선사

순천 송광사(松廣寺) 삼일암(三日庵)에서 정진하면서 틈틈이 경덕전 등록을 보다가 금륜가관(金輪可觀) 선사의 법어인 ‘월사만궁(月似彎弓)하니 소우다풍(小雨多風)’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마음의 눈이 열리고 뜻이 통하여, 일면불 월면불화(日面佛 月面佛話)와 무자화두(無字話頭)까지도 확연히 깨우치게 되었다.



◀ 백용성 조사의 생가



의 선포교(禪布敎)에 영향을 받은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안국동에 선학원(禪學院)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각사와 선학원은 바로 민족종교의 심오한 뜻과 민족의식 고취를 일깨워 주는 터전이 되었다. 용성대사는 한걸음 더 나가서 호국호법(護國護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함경도 북청에서 금광도 운영하였다.

1918년,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대성초당에서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대사와 자리를 함께 한 용성대사는 국제 정세와 국내 사정,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은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항일독립운동에 분연히 일어서기로 굳게 다짐을 한다.

용성대사가 체(體)가 되고 만해대사는 용(用)이 되어 호국호법을 서원하여, 만해대사는 용성대사를 심종의 스승으로 모시고 호국을 담당하는 대용(大用)이 되고, 용성대사는 호법을 담당하는 대체(大體)가 되었다. 이 대체와 대용은 천도교와 기독교 장로회·감리회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이 호국의 손을 맞잡고, 독립선언서의 1번 서명자에 천도교 대표 손병희, 2번 서명자에 기독교 장로회 대표 길선주 목사, 3번 서명자에 기독교 북감리파 대표 이필주 목사, 그리고 4번 서명자엔 불교 대표로 백용성 대사께서 서명을 함으로서, 불교와 천도교와 기독교 각기 다른 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열이 되어 3·1운동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용성대사를 비롯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은 서대문 구치소에서 1년 6개월간의 모진 옥고를 치르는 험난한 고난의

독립선언서의 1번 서명자에 천도교 대표 손병희, 2번 서명자에 기독교 장로회 대표 길선주 목사, 3번 서명자에 기독교 북감리파 대표 이필주 목사, 그리고 4번 서명자엔 불교 대표로 백용성 대사께서 서명을 함으로서, 불교와 천도교와 기독교 각기 다른 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열이 되어 3·1운동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 백용성 조사 생가 인채





길로 들어선다.

용성대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종교의 경전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민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유독 불교의 경전만이 한자로 쓰여져 민중에게 쉽게 읽힐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의 필생의 작업으로 경전 번역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58세가 되던 1921년 3월 출옥을 하자마자 경전 번역을 위한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첫 번째 책이 바로 심조만유론(心造萬有論)이다.

그 당시 일부 몰지각한 승려들에 의해 우리의 전통 불교가 퇴색되고 일본의 불교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조선 배불 정책의 뿌리가 남아서 스님들을 천시하고 불자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용성대사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 새로운 불교운동을 온 겨레의 마음속에 심어 주기 위한 새 불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용성대사는 시 한수를 지어 당시의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물과 물, 산과 산은 부처님 모습이요 / 꽃과 꽃 풀과 풀은 조사님 뜻이로다 / 한가로움을 기다려 왔다가 한가로움을 기다려 가는 데 / 달이 밝게 비침을 맑은 바람이 돕는구나 / 개새끼에게 불성이 없다함은 / 조주선사의 망령된 분별이요 / 동호의 봄 물은 푸르른 데 / 백구는 뜨고 잠김을 임의로 하는구나 / 내가 이 너인가 / 네가 이 나인가 / 초당의 봄날이 따뜻하니 / 백화가 익어 망자하게 피었도다.



용성대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종교의 경전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민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유독 불교의 경전만이 한자로 쓰여져 민중에게 쉽게 읽힐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 용성교육관



또한 일본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과 사상을 일본식으로 불교화하고자 조선인 승려들에게 대처식육(帶妻食肉)과 음주술가(飲酒率家)를 암암리에 조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불교는 본래의 전통을 망각하고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에 휘말려 각 사찰마다 대처식육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묵인되었으며, 심지어 조선총독부에서는 주지승 자격의 비구계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용성대사는 분연히 일어나 건백서를 내었다. 이처럼 용성대사는 우리나라 근세 불교를 정화(淨化)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분이다.

그는 산 아래에 수많은 전답들을 구입하여 그곳에다 과일나무를 심어, 일하면서 참선하고, 참선하면서 수행하는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일으켜 조선불교의 참선 수행의 새로운 국면도 열어 주었다. 이는 식민통치 아래서 힘겹게 꾸려가는 사원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자력갱생의 경제력을 일으켜서 민족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을 통해 무지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용성대사는 ‘대각일요학교’를 설립하여 어린이 교육과 포교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아이들에게 의식과 염불을 우리말로 가르쳤으며, 찬불가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였다.

1940년 음력 2월 24일은 관음재일이었다. 용성대사의 기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대사는 목욕재개한 뒤 깨끗한 가사를 수하고,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오늘 열반에 들고자 하니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효도를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무상대열반(無上大涅槃)이 원명상적조(圓明常寂照)라는 법구(法句)만을 염송하라.”고 유교(遺敎)하고, 수법제자(受法弟子)인 동헌완규(東軒完圭)에게 유훈십사목(遺訓十事目)을 주며 “사십구재를 지낸 후에 개봉해 보라.”고 하였다.

동헌수자(東軒受子)가 묻기를 “큰 스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시렵니까?”하니,

모든 행이 뗏뗏함이 없고 / 만법이 다 고요하도다 / 박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가니 / 삼밭 위에 한가로이 누웠도다.

조선 불교는 본래의 전통을 망각하고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에 휘말려 각 사찰마다 대처식육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묵인되었으며, 심지어 조선총독부에서는 주지승 자격의 비구계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용성대사는 분연히 일어나 건백서를 내었다. 이처럼 용성대사는 우리나라 근세 불교를 정화(淨化)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분이다.



이러한 임종계(臨終偈)를 읊고 나서 “시자여! 대중이여! 그 동안 수고했도다. 나는 간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빙긋이 웃으며 입적(入寂)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가 용성대사의 나이 77세로 일제 식민통치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다.

용성대사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번역한 경전 20여 종과 저술한 어록 20여 종, 도합 40여 종 60여 권의 서책, 경전들의 바른 뜻이 온 인류와 온 겨레 만중생의 수도의 표본이 되고, 교화의 기본서가 되었다.

변암면에 가면 백용성 조사 생가와 유허비, 대웅보전 그리고 기념관 등이 조성되어 근세 한국불교의 커다란 별이었던 그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 ● 용성 생가: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 252

### 정인승 박사

일제의 침략 마수가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뒤로부터 그들의 간악한 정책이 나날이 그 도를 더해 가더니 드디어 우리의 얼·말·글을 말살함으로써 우리를 뿌리 없는 겨레로 만들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겨레의 얼·말·글을 지키고 가꾸고 펴기 위하여 일생을 고스란히 불사르신 애국자 한 분이 여기 잠들어 계시니, 국어학자 이신 동래정공 인승이 바로 그 어른이시다.



◀ 정인승 기념관

용성대사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번역한 경전 20여 종과 저술한 어록 20여 종, 도합 40여 종 60여 권의 서책, 경전들의 바른 뜻이 온 인류와 온 겨레 만중생의 수도의 표본이 되고, 교화의 기본서가 되었다.





정인승 박사의 비문(碑文 · 경기도 남양주군 모란공원 묘원) 첫머리에 새겨진 글귀다. 이글은 제자이자 한글학자인 한갑수 선생이 지은것으로 정 박사의 일생이 잘 압축되어 있다.

건재(健齋) 정인승(鄭寅承) 박사. 오늘날 한글을 쓰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애국자이며, 나랏말을 갈고 닦기 위해 평생을 바친 훌륭한 국어학자요, 한글운동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국어사전의 모태가 되는 『큰 사전』 편찬에 20여 년간 혼신의 힘을 쏟아 주관했던 인물이다. 그는 나라사랑과 한글사랑을 위해 살다간 올곧은 선비의 표본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정인승은 1897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한학자인 아버지 정상조와 어머니 송성녀의 3남 2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동래(東萊) 정씨 가문의 족보일을 맡아 서울 왕래가 잦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고가 일찍부터 깨쳐 있었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배웠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구국항일의병이 일어나는 등 국난(國難) 계속되자 서당이 없어지는 등 어려운 피난살이를 하며 혼자 공부해야 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서울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책을 사다 주었다. 『조선역사』며 『동국사략』, 『만국지리』, 『산학통편』 외에 물리, 화학, 천문학에 관한 책들이었다.

이처럼 신학문에 일찌감치 눈을 뜬 정인승은 서당자리에 동신

정인승은 1897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한학자인 아버지 정상조와 어머니 송성녀의 3남 2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동래(東萊) 정씨 가문의 족보일을 맡아 서울 왕래가 잦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고가 일찍부터 깨쳐 있었다.



◀ 정인승 선생 동상

(東新)학교를 차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는 많으나 글을 배우지 못한 마을 형들과 아저씨 30여 명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게 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에게 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을에서 그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이다. 이때가 그의 나이 15살이었다.

하지만 정인승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서울에 올라가 좀 더 높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니 보통학교 졸업장이 필요해 18살의 나이에 상투를 자르고 진안 용담보통학교 2학년(4년제)에 편입했다. 이 학교에서 1년 반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정인승은 상급 학교 진학을 결심하고 서울로 가고자 하나 그의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정인승은 가출을 시도하고, 가출했다 붙잡히기를 세 번.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1918년 서울 연정학원과 중등학교에서 1년간 공부했다. 이듬해 봄, 법률전문학교에 지원해 놓고 입학 시험을 기다리고 있던 중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정인승은 한 장의 독립선언서를 갖고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연희전문에 응시한다.

1921년 24살의 늦은 나이에 정인승은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여기서 그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통하였으며, 특히 언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그의 별명이 ‘언어 박사’였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회 총무와 전문학교연합 조선학생회에서 간사일도 맡아 열심히 활동한다.

1936년 4월부터 정인승을 필두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사전인 『큰 사전』편찬 작업이 시작된다. 전임 집필위원으로 주필(主筆)인 정인승과 이극로·이윤재·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었다. 그 뒤에 권승욱·권덕규·정태진이 증원되었다. 그는 매일 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작업은 실로 엄청난 고난과 형극의 가시밭길이란 걸 그땐 아무도 몰랐다. 이들은 일본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조심스럽게 서로 만나면서 어휘를 수집하고 방학 때면 집에 내려간 학생들에게 그 지방의 어휘를 모아 오도록 해 도움을 받게 된다. 전문용어의 풀이를 위해 참여한 학자만도 50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5년이 되어가는 1941년, 원고 정리가 된 부분부터 인쇄에 들어갔다.

1936년 4월부터 정인승을 필두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사전인 『큰 사전』편찬 작업이 시작된다. 전임 집필위원으로 주필(主筆)인 정인승과 이극로·이윤재·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었다. 그 뒤에 권승욱·권덕규·정태진이 증원되었다. 그는 매일 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을 벌였다.



1백여 쪽의 조판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들은 일본의 간교한 음모의 회오리에 휘말려야 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학회사건이었다. 함흥학생사건을 꾸며 정태진을 잡아간 후 1943년 4월 1일까지 사전편찬에 참여한 11명 전원을 포함해 모두 33명을 잡아 들였다. 정인승은 1942년 10월 1일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로부터 해방되던 날까지 3년 여 동안 극심한 고문을 받으며 함흥 등지에서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다. 그때 당한 고문으로 정인승은 왼쪽 귀가 굳어 평생 짝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기소된 12명 중 2명의 동지는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형무소에서 풀려나온 이들은 다시 사전편찬 사업에 착수했으며, 해방된 조국의 교과서를 만들고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몰두해야 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없어진 줄 알고 애를 태웠던 사전 원고 대부분이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된 일이었다. 이들은 꺾여졌던 붓대를 다시 잡고 사전편찬에 박차를 가하여 1947년 10월 9일『큰 사전』1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인가.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터진 것이다. 사전편찬위원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집필한 원고 또한 안심할 수 없어 천안으로 옮겨 땅속에 묻어야 했다.

정인승은 전주로 내려와 전시연합대학과 명륜대학(현 전북대학교 前身)에서 국어학을 강의했다.

1954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중앙대 교수로 있으면서 다시 사전편찬사업을 주도했다. 1957년 한글날 드디어『큰 사전』6권 완질을 펴내었다. 우리 민족문화사상 획기적이고도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실로 21년간의 각고에 의한 결정이었다. 이어 1958년과 1960년 일반 대중이 편히 볼 수 있는『중사전』과『소사전』을 펴냈다. 이러한 공로로 정인승 박사는 문교부장관상과 학술원 공로상을 받았다.



▲ 정인승 선생 유해비

1945년 해방이 되자, 형무소에서 풀려나온 이들은 다시 사전편찬사업에 착수했으며, 해방된 조국의 교과서를 만들고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몰두해야 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없어진 줄 알고 애를 태웠던 사전 원고 대부분이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된 일이었다. 이들은 꺾여졌던 붓대를 다시 잡고 사전편찬에 박차를 가하여 1947년 10월 9일『큰 사전』1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 위치: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 정인승 박사기념관 : 063-352-3077





## 전해산 의병대장

전해산 의병장은 제2차 의병전쟁(1905~1910)때 귀신잡는 의병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이 시기는 일제의 의한 '남한토벌대작전'이 단행되던 때로 여기에서 말하는 남한이란 전라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의 끈질긴 토벌작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출귀몰하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의병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전해산이다.

전해산은 1879년 임실군 둔남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백발노인이 쇠북을 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한다. 해산은 당대의 석학 이한룡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기개가 크고 늘 곧은 말을 하여 주위사람에게서 촉망을 받았다. 1907년 겨울, 이 석용과 함께 기병을 한 그는 전남에서 위세를 떨치던 김준 의병장과 손을 잡고 싸울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가 장성에 이르렀을 즈음에 기삼연은 일본인에 체포되었으며 김준마저 전사한 후였다. 이때에 8척의 키에 담력과 병력이 뛰어난 장수 정원집이 30여 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찾아와 전해산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였다.

대동의병대장에 추대된 전해산은 제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지휘권을 잡아 부서를 정하니 선봉장에 정원집, 중군장 김원범, 후군장 윤동수, 호군장 박영근, 도포장 이범진 등이었다. 이렇게 정비된 의병부대는 나주 석문동에서 수백명의 왜군을 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을 우리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장소로 유인하여 더 큰

전해산 의병장은 제2차 의병전쟁(1905~1910)때 귀신잡는 의병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이 시기는 일제의 의한 '남한토벌대작전'이 단행되던 때로 여기에서 말하는 남한이란 전라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의 끈질긴 토벌작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출귀몰하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의병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전해산이다.



◀ 전해산 추모비각



전과를 올렸다. 이들은 또 의병을 빙자해 양민의 재산을 노략질하던 비적들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신뢰도 얻게 되었다.

전해산의 의병부대는 특히 게릴라전에 능숙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는 또한 병법에 능하여 척후병의 정보,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군사들을 움직였다.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죽고 사는 것을 알기는 심남일(沈南一)이요, 신출귀몰하기는 전해산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전남북 지방의 내륙과 해안선 일대까지 석권했던 그는 산과 바다 양쪽에서 활동해 호를 해산(海山)이라 부를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현상금 1만원에 눈이 먼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 1909년 전해산은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 일본군은 갖가지 감언이설로 귀화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전해산 의병장은 끝내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우국충정의 시를 남겼다.

서생이 무슨 일로 갑옷을 입었나  
본래 세운 뜻이 이처럼 틀려지니  
한숨만 나오고  
조정에서 날뛰는 꼴 통곡하겠네.  
바다 건너 들어온 적 차마 말도 못하겠소.  
대낮에 소리 삼키고 강물이 멀어지고  
푸른 하늘도 오염하며 실버들에 비 뿌리고.  
이제는 영산강으로 다시 못가리니

전해산의 의병부대는 특히 게릴라전에 능숙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는 또한 병법에 능하여 척후병의 정보,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군사들을 움직였다.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죽고 사는 것을 알기는 심남일(沈南一)이요, 신출귀몰하기는 전해산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 전해산 추모비



두견새되어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거나.

書生何事着戎衣 太息如今素志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白日吞聲江水逝 青天咽泣雨絲飛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鵲帶血歸

그 뿐만 아니라 일본군을 향해 “내 눈을 빼서 동해상에 걸어 놓으면 미구에 일본이 망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1910년 7월 19일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니 그의 나이 31세였다. 그 해 9월 8일 그의 시신이 번암면 원촌마을 생가로 운구되자 충격을 받은 부인도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전해산의 유품인 『진중일기』는 총 5권으로 지금은 그 중 2권만이 남아있다.

전씨 집안에 구전되어 오는 바에 의하면, 전해산 의병장 수하에 있던 의병들이 대나무 속 매듭 부분을 제거하여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일기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어넣고 그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아 보존하였다고 한다. 전해산 의병장을 향한 충성심과 그의 일기를 보존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진하게 배어나는 대목이다. 그 후 장수유림에서는 의사 전해산 추모비를 세워 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위치 :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번암중학교 교문 옆)

## 박춘실 의병대장

박춘실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본 이름은 동식(東植)이며, 춘실은 그의 호이다. 전북 진안군 안천면 와정리 중구실에서 출생하였으나 곧바로 장수군 계북면 백암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불의를 모르는 곧은 성품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박춘실은 국가존망의 이때 모두 분발하여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무주(茂朱)·장수·진안(鎭安)·용담(龍潭) 등지에 배부하여 민족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격문을 보고 모여든 의병 52명을 이끌고 용담 구봉산(九峰山)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6년 가을 문태서(文泰瑞·泰秀) 의진과 연합하여 장수와 무주

전해산 의병장 수하에 있던 의병들이 대나무 속 매듭 부분을 제거하여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일기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어넣고 그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아 보존하였다고 한다. 전해산 의병장을 향한 충성심과 그의 일기를 보존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진하게 배어나는 대목이다. 그 후 장수유림에서는 의사 전해산 추모비를 세워 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일대에서 일본군을 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1907년 무주 고창곡(高昌谷)에서 적과 교전하여 다시 전과를 올렸다. 1908년에는 무주 구천동에서 일군 헌병대와 교전하는 등 1909년 3월까지 5년 동안에 걸쳐 진안(鎭安) 천반산(天盤山), 임실 성수산(聖壽山), 장수 덕유산(德裕山), 무주 구천동과 적상산(赤裳山), 토옥동(土沃洞) 문성어전(文城於田), 농수리(農水里), 양악(陽岳), 진도리(眞道里) 등지에서 60여 차례 교전하였다.

1912년 문태서 의병장의 체포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동년에 있었던 무주 적상산 전투, 1913년 무주 구천동 전투 등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으며, 장계의 일본 헌병분견대 습격 등 지속적인 작전 전개를 통해 일군의 간담을 썩게 하였다.

1913년 일본군은 소위 덕유산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 박춘실은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육탄전을 치르던 중 부상한 몸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장계를 거쳐 전주형무소로 압송된 박춘실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초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 후 복심법원이 있는 대구로 압송되어 수감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1914년 6월 3일 벽돌담에 스스로 머리를 찢고 자결하였다.

현재 박춘실의 시신은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제1묘역 7번)에 안장되어 있으며, 장수군에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 위치 :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입구 도로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박춘실은 국가존망의 이때 모두 분발하여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무주(茂朱)·장수·진안(鎭安)·용담(龍潭) 등지에 배부하여 민족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격문을 보고 모여든 의병 52명을 이끌고 용담구봉산(九峰山)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

## 의병대장 문태서

문태서에 대한 족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름은 태진(泰珍)이며, 자는 태서(泰瑞), 호는 의재(義齋)로 경남 안의현 서상면 장구지(藏龜池洞)에서 성장하였다.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재주가 탁월하여 일찍부터 글을 배워 문리에 통달했으며, 금강산에 들어가 병서(兵書)를 익히기도 하였다.

문태서의 첫 번째 싸움은 안성면에서 벌어졌다. 1906년 일본군 5명이 용담에서부터 안성을 경유하여 무주읍내로 향하고 있었는데, 문태서는 뛰어난 지략으로 이들을 사로잡은 후 사살하였다. 그 뒤 9월 경, 장수군 계내면 양악에서 계북면 백암리 출신의 박춘실(朴春實) 의병부대와 합군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의병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문태서는 의병진용의 확대와 함께 활동지역을 넓혀 나갔으며 유격전과 기습작전을 주로 하여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문태서 의병부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에서 의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문태서는 자신의 의병진을 ‘호남의병단(湖南義兵團)’이라 정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문태서는 1907년 1월 적상면 삼유리에 살고 있는 감역(監役)을 지낸 유봉증(柳鵬曾)의 집에서 머칠을 지내게 되었다.

유봉증과 주민의 환대를 받은 문태서는 행여 자신이 떠난 후에 이들이 일본군에게 보복을 당할까 심히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병대가 침입하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머지 않아 일본군 수비대를 급습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해 삼유리로 진격해 왔다. 문태서 의병부대는 이들을 부남면 고창리의 고창곡으로 유인하였다. 신명선 의병부대와 합세한 문태서 의병부대는 미리 고창곡의 양쪽 언덕에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문태서 의병부대는 일본군 43명을 사살하고 총기류 50점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일본군은 이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덕유산 일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문태서 의병부대는 이곳의 지형은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밝았다. 이들은 이것을 심분 활용하여 험준한 골짜기를 이용, 일본군을 완

문태서의 첫 번째 싸움은 안성면에서 벌어졌다. 1906년 일본군 5명이 용담에서부터 안성을 경유하여 무주읍내로 향하고 있었는데, 문태서는 뛰어난 지략으로 이들을 사로잡은 후 사살하였다. 그 뒤 9월 경, 장수군 계내면 양악에서 계북면 백암리 출신의 박춘실(朴春實) 의병부대와 합군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의병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해 11월 문태서는 호남의병단의 통솔을 박춘실과 전성범에게 맡기고, 자신은 정예군 100여 명을 이끌고 전국 13도 의병대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는데 동참하여 전라우진소(全羅留陣所) 전라창의대장(全羅倡義大將)을 맡았다. 하지만 사전에 작전이 노출되어 버려 실패로 끝나 버리고 부대원들은 뿔뿔히 흩어졌으며 문태서는 낙향하게 된다.

1911년 여름, 문태서는 남은 의병부대를 이끌고 장수읍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대를 습격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전수행 후에 원통사로 회군하는 도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문태서 의병부대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1912년 8월 17일 문태서는 일본군 밀정에게 속아 붙잡히고 말았다.

문태서는 일본군에게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13년 2월 4일 감옥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말았다. 그는 용병술과 전술이 매우 뛰어난 의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항일 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1962년 나라에서는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建國功勞勳章 復章)을 추서하였으며, 무주구천동에 의병장 문태서 전승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997년 장수오션열현양사업회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세웠다.

● 위치 :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입구 도로변

문태서는 일본군에게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13년 2월 4일 감옥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말았다. 그는 용병술과 전술이 매우 뛰어난 의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항일 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 장수청정한우

## 7. 청정 농축산물, 장수한우

장수는 지리적으로 깊은 산과 풍부한 물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또한 고산지대의 특징인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장수한우는 예로부터 육질이 풍부해 감칠맛이 나고 부드러우며 씹는 맛 또한 일품이라 임금님께 진상하던 식품이다.

미국산 쇠고기 유통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지만 전북 장수에서 열리는 한우축제에서는 믿을 수 있는 국산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한우 축제에서는 국내 한우 55마리를 도축해 부위별로 도매시장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또 이곳에서는 우량 품종의 송아지 경매도 관람할 수 있다. 장수읍 의암공원 안에 있는 송아지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한우 혈통 등록우 40마리가 나온다. 구입농가에 운송비 3만원을 지급하



고, 가장 많이 산 구매자와 가장 높은 가격의 입찰자에게 각각 20만 원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장수한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난 맛을 자랑하는데 장수한우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가열 후에도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 보유능력이 높다.

또한 한우는 일반 곡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과 황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고급 단백질 식품이며, 또한 맛을 결정하는 글루타민산이 다량 함유 되어 있다. 장수한우의 사육과정은 크게 성장기-비육기-출하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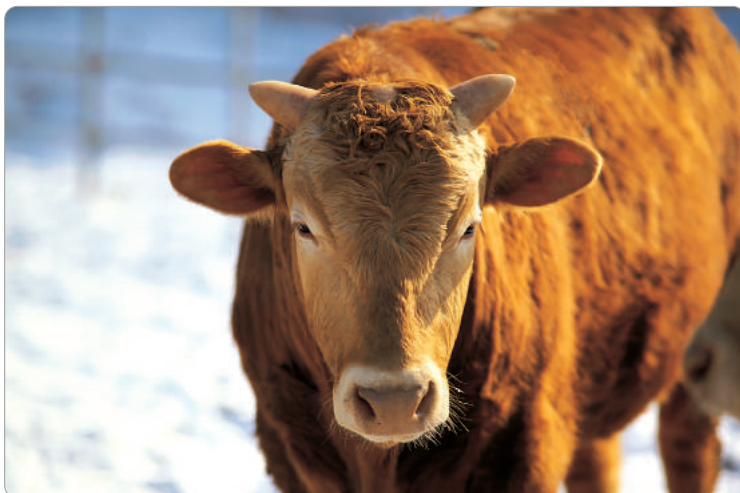
성장기는 생후부터 10개월까지로, 이 시기는 소의 골격이 생성되고 소화기관 등이 발달하는 시기로 질 좋은 무공해 풀사료를 많이 급여 하여 튼튼한 골격조직과 내장기관을 갖도록 하며, 이 시기에 솟소는 거세를 한다. 12~18개월까지는 체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비육기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급여량을 증가시켜 체지방이 골고루 축적되도록 한다.

18~24개월에는 근육내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시기으로써 배합사료량을 늘리고 조사료를 줄여서 사료를 공급해야만 고급 한우고기가 생산된다. 24개월 이상 비육하고, 체중 550~600kg에 출하한 소라야 육질이 우수하다.

장수한우계열화사업장에서는 총면적 74.4ha의 면적에 2,730평



▲ 장수청정한우 고기



◀ 방목중인 장수한우

장수한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난 맛을 자랑하는데 장수한우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가열 후에도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 보유 능력이 높다. 또한 장수한우는 일반 곡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과 황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고급 단백질 식품이다.



#### ◀ 한우 계열화 사업장

장수한우계열화사업장에서는 총면적 74.4ha의 면적에 2,730평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 1,8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열농가의 비료비 절감, 고급육 생산, 우량송아지 생산보급, 우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풍부해 감칠맛이 나고 부드러우며 씹는 맛 또한 일품이다.

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 1,8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열농가의 비료비 절감, 고급육 생산, 우량송아지 생산보급, 우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풍부해 감칠맛이 나고 부드러우며 씹는 맛 또한 일품이다.

- 장수축산협동조합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83-7
- 전화 : 063-351-2391, 2392







▲ 장수 사과 시험포의 사과

## 8. 청정 농축산물, 장수사과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18세기 초에 사과재배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홍만선의『산림경제』에 재배기술이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1906년 대한제국정부에서 독섬에 12ha 규모의 원예모범장을 설치하고 각국에서 도입한 사과 품종을 비교 재배 시험 등을 실시하고, 육묘도 동시에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사과품종을 선별하고, 사과 재배의 국가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사과 재배가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과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사과나무의 원산지는 발칸반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원생종은 두 방향으로 진화되었는데 동쪽으로 중국 서부와 시베리아를 거쳐 우리나라까지 분포된 *M. asiatica*계와 서쪽으로 유럽 남동부인 코카사스와 터키에서 2차 중심지를 형성한 *M. sieversii*계가 그것이다.



사과나무의 꽃은 4~5월에 피고 흰색 꽃이 잎과 함께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산형(傘形)으로 달리는데, 향이 진하고 매력적이다. 열매는 8~9월에 익으며 많은 재배종이 있다.

장수사과는 타 지방보다 당도가 높은 편이며, 아삭아삭하고 육질이 단단하며 중량감이 느껴진다. 또한 장수사과는 과즙이 많아 씹을 때 단맛이 강하면서 즙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장수사과는 타지방의 사과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 지방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수 사과꽃축제는 매년 사과꽃이 만발하는 시기인 5월에 장수군 사과시험포에서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도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친환경적인 체험형 관광축제를 지향한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도시민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축제의 새로운 트렌드인 체험을 위주로 하여 직접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장수읍 사과시험포에서 열리는 사과 수확체험이 바로 대표적인 체험행사이다. 일반인에게 올해 초 그루당 8만·10만원에 분양한 사과나무 2,400그루에서 과실을 따는 행사다. 분양을 받지 못한 방문객을 위해 계남면 사과농가의 400그루에서 수확체험을 할 수 있



▲ 장수 사과 시험포



◀ 익어가는 장수 사과

장수 사과꽃축제 도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친환경적인 체험형 관광축제를 지향한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도시민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축제의 새로운 트렌드인 체험을 위주로 하여 직접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다. 1만5천원을 내면 사과 5kg을 팔 수 있다. 장수군의 한 사과농가 주인은 “올해 사과농사가 잘됐지만, 추석이 일찍 찾아와 아직 익지 않은 사과열매도 더러 있다”며 “햇별을 많이 꺾도록 잎을 따주고 반사 은박지를 사과나무 밑에 까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점산지유통센터(S-APC)는 장수군 계남면 장수 IC인근 1만479평의 부지에 3천119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비파괴 선별기와 저온저장고, 채소처리장, 가공시설, CA저장고, 물류시설, 위생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최첨단 설비와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 제1호 산지유통센터이다.

이 센터는 앞으로 장수를 비롯해 인근의 진안과 무주, 남원 등지의 과일류 및 채소류의 선별과 포장, 저장, 판매 등을 맡게 되어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규격화된 상품을 단일화된 브랜드로 출시함으로써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아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산지유통센터(S-APC)는 장수군 계남면 장수 IC인근 1만479평의 부지에 3천119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비파괴 선별기와 저온저장고, 채소처리장, 가공시설, CA저장고, 물류시설, 위생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최첨단 설비와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 제1호 산지유통센터이다.

- 장수사과영농조합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16-7
- 전화 : 063-351-7011

▼ 사과 한우 축제가 열리는 장수







▲ 주촌 민속마을 전경

## 9. 옛 것이 좋은 사람들, 주촌민속마을

주촌민속마을은 28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으며 마을내에는 우리 조상의 진솔한 삶이 담긴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모정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시설과 논개정려비각이 있다.

장계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쪽으로 4km쯤 가다 오동, 대곡의 군도를 따라 3.5km쯤 거슬러 올라가면 깊숙한 산골에 40호 정도의 농가가 있는데 이 마을이 만고의 충열이며,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되는 의암 주논개의 태생지인 주촌마을이다. 400여 년 전 범바위골(주촌의 건너편에 있었다)에 사는 주달문이라는 학자가 이곳에 터를 잡아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장수삼절이 주벽이요, 충렬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의암 주논개가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13세까지 성장하면서 부친 주달문에게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주씨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주촌이라는 이름을 붙



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논개를 낚기 위해 공을 드렸다는 성황당이 지금도 이 마을의 '지킴이'로 남아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지킴이'인 조탑과 노송 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를 지낸다. 생가지에는 장수군 초대 교육감을 지낸 김상근씨가 세운 의랑 주논개 생장향수명불망비각이 우뚝 서있다.

마을 앞 동쪽으로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민재(소백산맥)가 있다. 이 재는 논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숙부인 주달무가 풍천마을에 사는 백치불구인 김풍헌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칠혹 같은 그믐밤에 어머니와 함께 이 재를 넘어 외가로 피신했다는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는 곳이다.

이렇듯 주촌 마을은 의암 주논개에 관한 유적과 전설들이 서려 있는데, 마을 아래에 대곡호를 막게 되어, 마을이 온통 제당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훨씬 위쪽에 새 터를 잡아서 주논개의 생가복원을 하고 유적도 같이 옮겼다.

장계면 주촌마을은 옛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전통 테마마을로 전 가구 주민이 옛 모습 그대로 생활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논개 생가지를 둘러보고 난 후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콩, 청국장, 깨, 마른나물 등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주논개 생가지와 논개사당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도 개설되어 있다.

#### ● 주촌마을 위치 :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 주촌 민속마을의 한 곳

주촌마을은 옛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전통 테마마을로 전 가구 주민이 옛 모습 그대로 생활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논개 생가지를 둘러보고 난 후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콩, 청국장, 깨, 마른나물 등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주촌 마을 입구





▲ 방화동 가족휴가촌

## 10. 자연으로의 여행, 장안산과 방화동 가족휴양림

전국 8대 종산에 속하는 장안산(1237m)은 주변 일대의 계곡과 숲의 경관이 빼어나게 수려하여 덕산계곡, 용소의 비경 등이 있다. 일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 개발되어 여름에는 피서지로, 가을에는 장안산 억새와 단풍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흐드러지게 핀 억새밭에 만추의 바람이 불면 온 산등이 하얀 억새풀의 파도로 춤을 추는 듯 하여 등산객들을 경탄케 한다.

장안산 군립공원은 덕산용소와 방화동, 지지계곡 지구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 방화동은 진입로가 말끔히 포장되어 접근하기가 쉬워 가족휴가촌까지 조성되어 있어 피서지로 적당한 곳이다.

장안산에서 발원하여 용림천으로 흘러드는 풍치절경의 골짜기가 덕산계곡이다. 이 계곡에 '덕산용소'가 있다. 덕산용소는 '큰 용소'와 '작은 용소'로 이루어져 있다. '큰 용소'는 울창한 숲과 기암괴





석을 휘감아 도는 맑은 계류 위로 넓은 암반이 펼쳐진다. 장수군의 산자락 일대에는 논개의 사당과 생가 등이 있어 문화 유적 답사도 겸할 수 있는 산이다.

장안산 기슭에 조성되어 있는 방화동 자연 휴양림은 면적이 약 24만 7000㎡로 가족 단위부터 대규모 동호회까지 선호도가 높다. 덕산 용소에서 방화동 계곡으로 연계되는 코스에는 자연 학습장, 모험 놀이장 등의 삼림욕장 시설이 자리하며 맑고 깨끗한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과 다양한 수목 등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아주 매력적인 휴양림이다.

영화 「남부군」에서 빨치산 대원 500여 명이 목욕하는 장면의 배경이 바로 전북 장수군 방화동 계곡이다. 계속되는 전투와 도피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빨치산 대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는 장면이 방화동계곡에서 촬영되었다. 이처럼 방화동 계곡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은밀하면서도 물이 좋기로 유명하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이야기할 때에는 방화동가족휴가촌을 빼놓을 수가 없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은 1988년 2월 19일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캠핑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전국 최고의 오토캠핑장으로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다.

입구의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어른 2천원, 청소년 1천 5백원, 어린이 1천원)를 내면 방화동 가족휴양촌 혹은 방화동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오토캠핑장에 텐트를 치려고 계획 했다면 시설 사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이야기할 때에는 방화동가족휴가촌을 빼놓을 수가 없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은 1988년 2월 19일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캠핑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전국 최고의 오토캠핑장으로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다.



◀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구

용료(5인 이하 소형텐트 5천원, 6인 이상 대형텐트 1만원/1일 기준)를 내면 된다. 아름다운 물소리동(물이 감싸며 돌아나가는 지형의 땅)의 풍광을 감상하며 안으로 들어서면 널찍한 오토캠핑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은 차를 세우고 바로 옆에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구획이 정리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캠핑장 중앙에는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는 더없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의 오토캠핑장은 최대 300여 팀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곳에는 오토캠핑장 2곳, 야영장 3곳, 모험놀이장, 가족 놀이장, 체육 광장, 전망대 등이 갖춰져 있다.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도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은 주차공간과 맞닿은 잔디밭에 마련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관리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한 캠핑장 옆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어서 간단한 식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필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캠핑장을 휘감듯이 흐르는 계곡에는 물놀이장이 여러 군데 조성돼 있어서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물놀이를 하다 지친 이들은 휴가촌 주변에 서있는 커다란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나무들은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천연 그늘막 역할을 톡톡히 해 줌으로써 다른 피서지처럼 파라솔을 빌리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방화동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덕산계곡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 다양한 형태의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휴양촌에서 계곡이나 산책로를 따라 1시간가량 올라가면 반경 10여m의 깊은 소가 나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도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은 주차공간과 맞닿은 잔디밭에 마련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관리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한 캠핑장 옆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어서 간단한 식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필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 오토 캠핑장 (좌)  
▼ 물놀이장 (우)



타난다. 위쪽부터 하얀 포말을 만들며 맑은 물이 굽이치는 이곳이 바로 방화동 계곡의 최고 비경인 용소다.

용이 하늘로 올랐다는 뜻의 용소가 2개에 이르고, 감골, 은골, 절골 등의 작고 은밀한 골짜기들이 마치 싹틔줄처럼 뻗어 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시사철 어느 때에 찾아가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산을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저녁 해와 더불어 야영객들의 야외 바비큐 파티가 시작된다. 정겨운 식사를 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둘씩 켜지는 텐트촌의 랜턴들이 마치 반딧불처럼 사방에서 빛을 발한다.

방화동 계곡의 숙박시설로는 산림문화휴양관 16실과 숲속의 집 3동이 있다. 원룸형인 산림문화휴양관은 6인실과 8인실로 나뉘는데, 8인실에는 다락방도 있어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소이다. 60㎡ 크기의 숲속의 집 3동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으로써 시설들은 깔끔한 편이다. 모든 객실마다 화장실, TV(위성방송), 침구류, 전기 핫플레이트, 냉장고, 식탁, 싱크대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 방화동 가족휴양림 위치: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625번지 일원
- 전화: 063-353-0855, 350-2262



용이 하늘로 올랐다는 뜻의 용소가 2개에 이르고, 감골, 은골, 절골 등의 작고 은밀한 골짜기들이 마치 싹틔줄처럼 뻗어 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시사철 어느 때에 찾아가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산을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저녁 해와 더불어 야영객들의 야외 바비큐 파티가 시작된다.

◀ 산림문화휴양관





▲ 도깨비마을

## 11. 장안문화예술촌과 도깨비 축제

장안산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덕유산, 치악산과 더불어 백두대간 전국 8대 종산(宗山) 중 가장 광활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일명 영취산(靈鷲山)으로 불리우는 장안산은 금강, 섬진강, 낙동강의 수세를 지휘하고, 중부 능선에는 산등에서 동쪽 능선으로 등산로를 따라 광활한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장수 도깨비마을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일대 해발 45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본래는 장안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장안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에 따라 안동리, 지보리, 희평리, 괴목리를 병합하여 장안리라 하였으며, 현재는 원장안, 희평, 괴목 등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정부로부터 산촌문화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발전에 박차를 가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도깨비마을 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어 마을 고유의 산촌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발굴·계승하고 있다

도깨비 축제는 마을 주민이 기획에서부터 정성과 열정을 모아 준비를 하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마을 잔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행사에는 도깨비체험, 맛체험, 놀이체험, 공예체험,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 나와라 뚝딱!’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종이접기 과정을 거치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가면이 완성된다. 자 이제 도깨비 가면을 쓰고 도깨비 산골로 도깨비체험을 떠나 볼까나?

도깨비 이야기가 무성한 골짜기. 저녁 식사 후에는 이 도깨비골짜기로 떠나는 체험이 이어진다. 랜턴불을 잠시 끄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며 무더운 열기도 어느새 사라진다. 캄캄한 산길을 도깨비 불빛을 비추며 조심조심 골짜기를 오르면 도깨비들의 놀이터 ‘도깨비산막’이 있다. 무서운 도깨비를 피해서 익살스럽고 놀기 좋아하는 도깨비와 한판 놀이판을 벌이고, 인자하고 착한 도깨비를 만나면 선물이 한 보따리다.

이곳에 오면 ‘도깨비표’ 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 바로 도깨비 동굴김치와 도깨비만두이다.

동굴을 따라 100여m를 들어가면 여름철에도 10℃ 이하로 1년 내내 익어가는 (도깨비 동굴김치)를 만나게 된다.

11월 중순께면 이 곳 도깨비마을에서는 ‘도깨비 김장김치’ 행사가



▲ 도깨비축제 모습 1



◀ 도깨비축제 모습 2

도깨비 축제는 마을 주민이 기획에서부터 정성과 열정을 모아 준비를 하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마을 잔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행사에는 도깨비체험, 맛체험, 놀이체험, 공예체험,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김장 김치를 직접 장만하고 맛보기도 한다. 또한 맛있게 버무려 담근 김치를 잘 봉하여 자신의 이름표를 달아 동굴 깊은 곳에 저장하면 자연 숙성이 되는데, 먹고 싶을 땐 언제든지 방문하여 맛과 재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청정자연속에서 숙성된 김치맛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우리 콩을 갈아서 만든 두부와 맛깔스런 도깨비 동굴 포기 김치에 신선한 재료를 도깨비방망이로 두드리고 밀어서 만들어내는 맛있는 도깨비 김치만두 체험은 '도깨비잔치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도깨비테마축제는 매년 8월이면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장안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도깨비를 주제로 한 공연과 놀이 전시, 체험 장터 등이 다양하게 열린다.

주변에는 덕산계곡과 방화동 휴가촌, 지지계곡 등이 모두 장안산 자락에 들어서 있으며 전국 8대 종산(宗山)의 하나로 1237m이며 장안마을을 둘러싼 장안산은 특히 가을 억새풀 경관이 아름답고 등산코스로 인기가 높아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등산은 괴목마을과 장안마을에서 시작하는 2개 코스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 도깨비마을 주소 :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일대



도깨비테마축제는 매년 8월이면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장안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도깨비를 주제로 한 공연과 놀이 전시, 체험 장터 등이 다양하게 열린다.

◀ 장안예술인촌







▲ 팔공산 전경

## 12.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만남, 팔공산

팔공산은 위치적으로 백두에서 나와 지리산을 거쳐 한라까지 뻗어 내린 백두대간의 중하위점인 금남호남정맥 줄기에 솟아 있는 봉우리 중 하나로 해발 1,151m의 준엄하면서 깔끔한 모양의 산세를 가진 산이다. 금남호남정맥은 한반도 13정맥의 하나로,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으로 이어주는 산줄기이다. 장안산에서 수분현 팔공산, 성수산, 마이산, 부귀산으로 이어져 주화산에서 끝난다. 또 주화산에서는 금남정맥이 시작되어 호남정맥으로 이어진다. 또 이 산줄기의 팔공산 북쪽 상추막이골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여러 갈래의 지류를 거느린다.

진안군 남서부를 지나고 임실군에서 갈담천, 순창군에서 추령천·오수천·경천, 남원시와 전남 곡성군의 경계에서 요천·옥과천 등의 지류와 합류한다. 전남 구례군에서는 보성강·서시



천·황전천·화엄사천, 경남 하동군에서는 횡강을 합치고 광양만에서 남해로 흘러든다.

섬진강은 그 위치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며 흐르는데 섬진강댐까지는 본류와 지류가 대부분 북서쪽 혹은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서 광양만까지의 구간은 그 방향을 남동쪽으로 바꾼다. 서사면에서 발원하는 천이 북류하여 금강을 이루고, 남사면에서 발원하는 오원천이 섬진강을 이룬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강과 섬진강 양 하천의 분수령은 장안산 수분리 원수봉 팔공산 성수산이 분수령이 된다 할 수 있다. 이 정맥의 남쪽으로 화강암지대에 남원분지와 순창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평균 높이가 가장 낮은 노년기 정맥으로, 정맥의 서부에는 드넓은 호남평야가 전개되어 삼천리에 걸쳐 살고 있는 우리들 먹거리의 주생산지가 된다.

팔공이라는 이름의 뜻은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교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어 진다. 먼저 원효와 의상이 이 산에 들어와 8명의 승려를 가르치며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제 무왕 때 해감(解憾)이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수도처로 삼기 위해 이 절을 세웠단다. 그의 제자 7명이 모두 근처에 암자를 1개씩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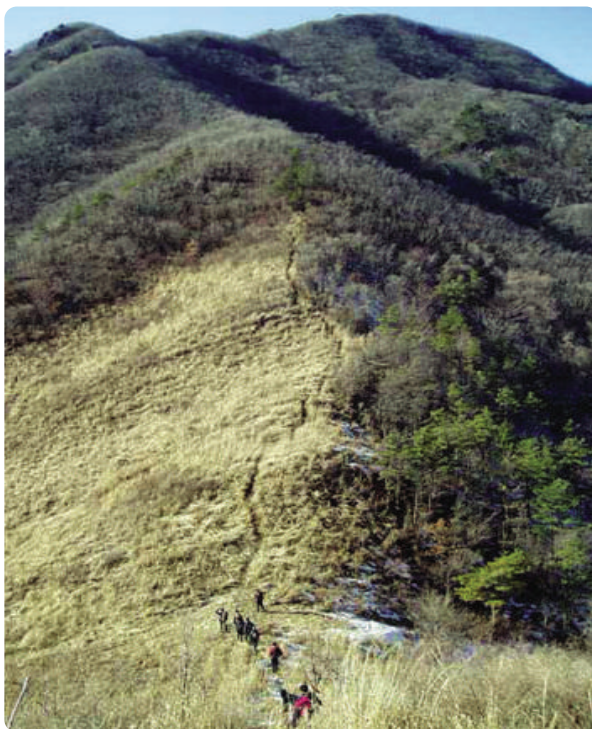
그래서 팔성사가 있는 산이라 하여 팔성산으로 불려지다 다시 팔공산으로 변천했다는 설이다. 이 팔성사에 속한 8개의 암자에 각각 1명의 성인이 머물러 팔공산이 되었다는 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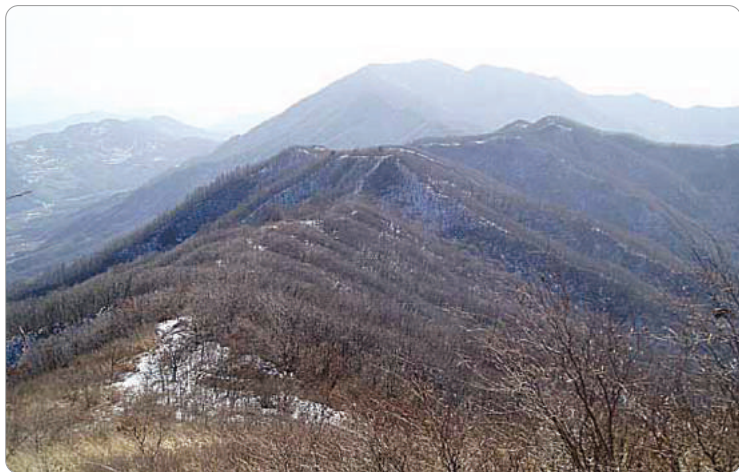
또 다른 설은 위의 설과 흡사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설로 앞으로 이 산의 주위에서 8명의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고 국제무대에서 국운을 좌우할 분, 즉 공(公)자를 붙일 만큼의 인재가 이 산 줄기의 정기를 받아 나온다는 설이다.

장수군민의 삶의 터전인 대성 5동 동네에서 바라보는 팔공산 정상은 볼록하고 두루

팔공이라는 이름의 뜻은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교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어 진다. 먼저 원효와 의상이 이 산에 들어와 8명의 승려를 가르치며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팔공산 능선





#### ◀ 팔공산 전경(2)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상은 봉우리가 아니고 능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리 쪽이나 진안 쪽에서 본다면 산 봉우리가 한자의 八자 모양이기에 붙여진 이름이고 산이 높고 품위가 있어 보임으로 '공'자를 붙인 것으로 본다는 설도 있다.

뭉실한 봉우리의 산이다.

그러나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상은 봉우리가 아니고 능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리 쪽이나 진안 쪽에서 본다면 산 봉우리가 한자의 八자 모양이기에 붙여진 이름이고 산이 높고 품위가 있어 보임으로 '공'자를 붙인 것으로 본다는 설도 있다.

#### ● 팔공산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 합미성의 성벽

## 13. 군사의 요충지, 합미성

합미성이 위치한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를 사람들은 밥내(食川) 또는 밤내(栗川)라고 부른다. 밤내는 아마도 밥내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데서 유래한 듯하다. 본래는 이곳이 솔이 걸쳐 있는 형국이라 하여 복부혈(伏斧穴)의 명당이라고 하였다. 본시 솔이라 함은 밥을 짓는데 쓰는 그릇이며, 솔의 밑에는 물이 있으므로 ‘밥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지금의 식천분교 뒤에 있는 산등성이를 ‘솔택거리’라 부르며 동네 옆으로 뻗어나 줄기를 주걱날이라 부른다.

합미성은 조선시대에 성을 보수하여 병사들의 군량미를 모아 두었던 곳이라 합미성(合米城)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방에서는 ‘쭈구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던 곳이라는 뜻의 수군지(守軍址)가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으로써 성의 규모는 둘레 970척, 높이는 밖



으로는 15척, 안으로는 5척 정도이며 현재는 둘레 500m 정도가 남아 있다. 지금도 산성 터에는 성에 주둔했던 군사들이 사용할 물을 지하로 급수하던 수로관 시설이 남아 있으며 몇 년 전에는 성 유적지에서 불탄 쌀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 함미성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신무산(神無山)이 있다. 함미성을 지키기 위하여 병사들이 신무산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적군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산성의 특징으로는 본진(本陳)인 내성(內城)이 있는 점이다. 내성은 성곽의 동북 모서리에 돌출되어 있는데, 성안에서는 가장 높은 조망대 구실을 한다. 성곽의 규모는 동변 19m, 북변 37m이며, 동쪽과 북쪽 성벽이 외성벽을 겹하고 있다. 성 안쪽과 구분하는 성 줄기는 남쪽 40m, 서쪽 13m이다. 북쪽에는 북문터가 있어 밖으로부터 직접 내성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성 남변과 외성 사이의 구석에는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가는 성문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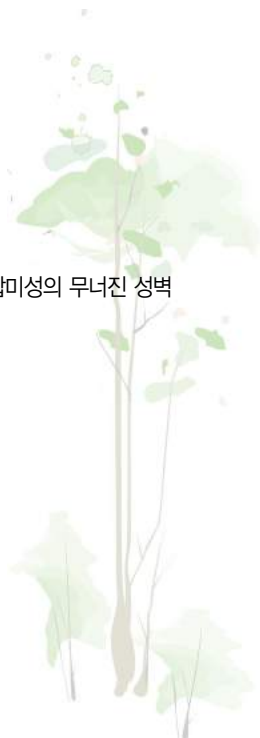
북변에는 중앙에 북문터가 있어 직접 밖으로부터 내성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성남변과 외성사이의 구석에는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가는 성문터가 있다. 이 성문과 외성사이에 넓이 4m, 높이 2m의 우루대(隅樓臺)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내성과 외성의 이중성을 축조하는 것이 백제시대 산성의 특징이다

#### ● 함미성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본진(本陳)인 내성(內城)이 있는 점이다. 내성은 성곽의 동북 모서리에 돌출되어 있는데, 성안에서는 가장 높은 조망대 구실을 한다. 성곽의 규모는 동변 19m, 북변 37m이며, 동쪽과 북쪽 성벽이 외성벽을 겹하고 있다. 성 안쪽과 구분하는 성 줄기는 남쪽 40m, 서쪽 13m이다. 북쪽에는 북문터가 있어 밖으로부터 직접 내성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성 남변과 외성 사이의 구석에는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가는 성문터가 있다.

◀ 함미성의 무너진 성벽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장수

---

발 행 일 : 2009년 6월

발 행 처 : 전라북도청

연 구 총 괄 : 최 낙 환

고증및사진 : 하 태 규

글 쓴 이 : 유 지 은

---

비매품